



“무역전쟁 낀 한국, 미·중에 할 말은 하라”



맥스 보커스(왼쪽)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G20→G2→G0, 다시 내다보는 10년’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shdmf@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둘째날 - 맥스 보커스 연설

맥스 보커스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1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유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해 기존 강대국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보커스 전 대사는 이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보커스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커스 전 대사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최근 화웨이 사태로 인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한 데 대해 “한국 입장에서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이 바라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배려한 선택을 할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데일리 전략포럼 둘째날 행사는 ‘경제전쟁,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

“美 진정 원하는 것 먼저 파악
확고한 자세 갖고 목소리 내야”

열번째 전략포럼 이틀 일정 마무리
국내외 전문가들 한반도의 길 제시

주의,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복잡해진 글로벌 역학구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진행한 세션3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속 한국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윤종호 주한글

로벌기업 대표자협회장,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션4는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5에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장과 이등근 현대경제연구원장,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경제를 살릴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로써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틀간 총 1800여명(유료회원 기준)이 참석해 혼돈과 위기 속 한반도 문제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특별취재팀·파용익 기자 yoniki@